

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



‘국민을 살리는 조국’을 가질 권리

결코 끝나지 않을 막장 드라마 같던 선거도 막을 내리고, 끝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바라던 국민 드라마 ‘태양의 후예’도 오늘 드디어 막을 내린다. 태양의 후에는 후련한 카타르시스를 남긴 것만으로도 돌아보고 싶어지는데, 이에 비해 선거 과정은 별로 돌아보기조차 싫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선거가 국민 드라마가 되는 날도 있으련만 말이다.

태양의 후에는 가히 카타르시스였다. 짝하고 달달한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일에 대한 이야기였고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였고, 동료애에 대한 이야기였고, 의리에 대한 이야기였고, 무엇보다도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드라마가 초반부터 뜨고 군인의 이야기에 과병 이야기에 태극기에 대한 경례 장면이 나오니 그랬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드라마를 칭송하는 오버까지 해서 뜨악하게 만들었지만, ‘태양의 후예’는 갈수록 박근혜정부의 국가관 또는 역량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드라마에서는 주옥같은 명언들과 그에 합당한 행동들이 쏟아졌다. ‘국민을 살리는 게 최고의 의무로 알고 있는 군인’은 재난 상황에서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사람까지 구하느라 목숨 걸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국민을 살리지 않는 조국은 나의 조국이 아니다’라며 특전사는 위험의 구렁텅이에 자신을 던졌고, 특전사령관은 자신의 직을 걸고 부하의 행위를 보호했다.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지 않은 시청자들이 있을까? 과연 국가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던 걸까?

적어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정부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었다.

급기야 대통령이 나온 장면은 가히 판타지 드라마다였다. 성공한 작전에 어떻게 책임을 묻느냐, 안보와 외교는 대통령의 책임일 뿐이라며 ‘인질을 구해 줘서 고맙다. 아무도 안 다치고 다 돌아와 줘서 고맙다’며 특전사령관에게 90도로 절하는 대통령의 존재, 우리는 있고 있었던 존

재였다. 과연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럴 것이라 믿어야 하건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현재의 대통령이 그런 존재일까? 이 장면에 어울리는 대통령으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며 SNS가 뜨거워졌다. 이런 장면은 판타지이지만 해야 했을까?

안타깝게도 ‘태양의 후예’는 판타지다. 명예와 책임과 의리와 원칙과 상식이 살아 있는 판타지 말이다.

현실에서는 어떤 막장 드라마가 펼쳐졌던가? 선거구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분열했고, 그 분열을 포착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거짓 논리들이 판쳤을 뿐 아니라, 여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 분열이 계속되지 않을까 봐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를 응원하는 코미디까지 펼쳤다. 분열은 필패임이 속속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통합도 연대도 없었을 뿐이다. 그것은 깨어 있는 국민의 몫일 뿐이었다. 당을 바꿔 나온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다시 공천을 받고 호남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누렸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복

수극이라 할 만한 공천 학살이 비롯이 자행되었다. 오만한 공천 학살이라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도 잠시 지나면 그 뿐이라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불행히도 이번 총선은 최근 총선 중 가장 흔쾌하지 않은 총선이었다. 정책이 완전히 사라진 총선이었다. 미래가 불투명한 총선이었다. 주객이 전도된 선거였다. 이 막장 드라마가 진행될 때 국민은 주인공이 될 수 없었다. 하마터면 박근혜정부의 모든 잘못들이 덮어질 뻔했다.

그렇다. 현실은 판타지 드라마가 아니다. 원칙과 상식과 책임과 명예 대신에 변칙과 비상식과 무책임과 불명예가 대세다.

하지만 말이다. 드라마는 온전히 작가가 쓰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국민이 드라마를 만든다. 오늘 이후의 현실 속 드라마는 어떻게 펼쳐질까? 분명한 것은 현실에서의 이상 실현을 판타지라고 버려둘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왜 이상은 판타지 드라마에서만 펼쳐져야 하는가? 우리도 국민을 살릴 조국을 가질 자격이 있다.

〈전 국회의원·도시건축가〉

의료칼럼



김 동 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원장

봄철 운동

움이 된다.

규칙적이고 체력에 알맞게 하는 운동이라면 어느 것이나 도움이 되지만, 이왕 하는 거라면 봄에 하기 좋은 운동을 해보는 것도 건강에 유익하다.

봄에 권장되는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건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유익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운동을 추천한다.

등산은 봄에 하는 운동으로 가장 적합하며, 자연의 푸른 빛을 만끽하면서 심폐기능도 더불어 향상시킬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다. 또한 하체와 허리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등산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극기 훈련을 하듯이 속도를 내기보다는 동반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경치도 감상하면서 천천히 오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산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은 30분 정도 걷고, 10분 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숙련자는 50분 정도 걷고 10분 쉬

는 것이 적당하다.

자전거 타기는 전신 운동보다는 국부적인 운동이 필요한 사람, 특히 하체가 약한 사람에게 더욱 좋다. 그리고 이 운동은 다리에 국부적인 피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자전거 타기는 앉아서 실시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너무 짝 끼는 옷보다는 혈액순환에 장애를 주지 않는 운동복을 선택해야 하고, 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운동 전 스트레칭을 이용한 충분한 준비운동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깅은 추운 겨울 실내생활로 인한 체력 저하와 음식 섭취로 인한 과체중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인 운동이다. 이 운동은 몸 전체가 상·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이 필수적이다. 발목, 무릎, 허리 등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전신의 긴

장을 풀어 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조깅할 때는 적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효과가 뛰어난 가벼운 조깅화를 신고, 통풍이 잘 되는 운동복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봄철 운동으로 적극 추천되는 운동이다. 최근 들어 주먹구구 주변에 많은 스포츠센터나 웨이트 트레이닝 시설이 들어서고 있으며, 일부 아파트는 단지 내에 헬스장이 설치돼 있기도 하다. 접근성이 편한 시설을 이용해 자신의 체력에 맞게 중량을 선택해 운동하는 것이 좋다.

초보자는 자기 최대 능력의 60%를, 숙련자는 80~100%를 고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순전히 자신의 임의대로 실시할 경우 운동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자신이 맞는 운동 종목과 운동 강도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 고

시계방 주인의 독백



김 상 문 전 순천선혜학교 교장

혼자만 고고하게 남아있으면 손해 보는 기분이 들어서, 그날도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한쪽구석엔 버린 물건들이 빼곡하게 쌓여있는 사이로 동그란 시계가 보였다. 초침이 돌아가지 않는 걸로 보아 고장 난 시계임이 틀림없다. 그러기에 내 버렸는지도 모른다.

건전지 약통을 보아하니 약간 녹이 슬었다. 먼지 묻은 걸면을 뒤엎더니 영락없이 새것이다.

들고 나와 건너편에 있는 시계방에 갔다 시계방주인에게 “누가 시계를 버렸는데 살 때 살려주세요, 어디가 고장 났는지 살펴보시오” 하였더니 다짜고짜로 안경 너머로 아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주운물건이나 가지고 다니는 그 꼴같이 처량하게 보여서 일까” 아니면 “고칠 수도 없는 쓰레기에 가까운 물건을 들고 오는 가난뱅이 영감쯤으로 여겨서일까”

그의 아이없는 표정에 한참동안 몸 둘 바를 몰랐다. 쓰고 있던 안경을 치켜 올리면서 “지금 시계들은 소모품이여요, 그냥 몇 년 쓰면 바로 버리고 새것 삽니다.”하고 어린 꼬마들에게나 가르치는 몸짓으로 힘을 주며 또박또박 말하는 것

이었다.

얼마 후 “보시오 건전지를 갈아 끼웠더니 가지 않아요” 자기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속 내 민다. 정말 새 시계처럼 재작 재작 잘 돌아갔다.

나는 새 시계를 얻은 기쁨보다 시계방 주인의 어두운 표정에 영 마음이 걸렸다. ‘이렇게 약만 갈아 끼우면 쓸 것을 왜 버려 혼자서 알뜰 맘뎌 중얼거리면서 ”오즘 세상은 다 일회용이요,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든다요’ 힘이 다 떨어진 목소리로 “세상이 다 변화하는데 나만 지키고 살순 없지요”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었다.

“이제 삼십 년 동안 지탱해온 시계방을 때려 치우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예전사람들은 고쳐 쓰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요즘사람들은 그냥 쓰고 내팽개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무 미련없이 헤어져요” 사람도 물건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는 것 같았다.

제법 어느 철학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 를 듣는 것 같다. 그도 삼십년의 직업전선에서 살다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으리라.

그의 거슬릴 수 없는 심란한 마음에 공감하면서 시계방을 나왔다.

옛 사람들은 물품을 쓰는 것도 중요시 했지만 버리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 나의 어머니는 물을 쓰고 버리더라도 용도에 따라 썼다. 깨진 항아리에 쌀을 씻고 난 그 물을 모아 놓았다가 얼굴을 씻거나 행주를 빨았다. 다시 그물을 모았다가 밭을 씻거나 걸레를 빨았다. 그렇게 씻은 물도 버리지 않고 모았다가 텃밭에 뿌리거나 마당에 뿌렸다.. 이처럼 철저하게 물은 소비되지만 다시 재생되었다.

우리 조상들은 가정에서의 쓰레기는 남의 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곳에 묻었다. 자기 집에서 먹는 음식물도 남으면 서로 나누어 먹었다. 길거리에 서 먹는 행위는 염치없는 사람으로 여겼고 특히 야외에서 먹을 때는 행위자체를 감추면서 먹었다. 가뭄이 들어 공동생물도 필요이상은 길러가지 않았다. 서로에 대한 배려였다.

시계수리업이 퇴장하는 것은 어찌 시대변천에 따른 것이다. 내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계방 주인의 마음속에 품은 아쉬운 마음이 현실화 되어가는 오늘 날의 행태가 두려워서 그렇다.

社 說

제3당 시대 개막... 호남 정치지형 바뀌었다

어제 실시된 제 20대 총선에서 국민 의당이 광주 8석을 모두 싹쓸이하고 전남에서도 10석 중 8석을 차지하는 등 호남 28개 선거구에서 ‘압승’했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안방이었던 광주·전남·북에서 야권 교체에 성공, 20년 만에 총선을 통한 3당 체제를 형성해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전국적으로는 호남을 차지한 국민의당과 수도권에서 선전한 더민주 등 야권 승리로 ‘여소야대’가 이뤄져 우리 정치에 격랑이 예고됐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부진과 함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일부 무소속 후보에게 의석을 내줘 과반 획득에 실패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서울 노원 병에서 여유 있게 당선됐다.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등을 포함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훨씬 상회함으로써 앞으로 양당 제도의 폐해를 해소하고 한국 정치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강력한 제3당의 위상을 확보했다.

이번 총선은 야권 분열에도 불구하고 무능으로 얼룩진 박근혜정부와 공천 관련 진흙탕 싸움으로 눈 밖에 난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호남 지역만을 놓고 볼 때, 수도권에서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호남인의 바람을 저버린 더민주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 할 수 있겠다. 오랫동안 호남인들은 더민주에 민주세력의 대표 역할을 하라는 뜻에서 적극 지지를 보냈지만, 민생 해결 능력은 갖추지 못한 채 야당의 본분을 잃고 계파 권력에 취해 오다 참패를 당했다는 분석이다.

무능과 패권, 엄중한 심판

호남 유권자들이 16대 대선 때 영남 출신 노무현 후보를 경선부터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은 개혁정치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 즉 핵축은 영호남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민생을 보듬으며 남북화해를 위한 ‘큰 정치’를 펼치라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노무현 정부 출범의 원동력이었던 호남의 성원을 ‘호남 홀대’로 되갚아 갚은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

같은 반감이 호남의 총선 결과를 잉태했다는 게 중론이다. 사상 첫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정부 중요인 사들은 대북특검으로 영어의 고초를 겪어야 했다. 국가 원수로서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던 노 대통령은 결국 야권 교체에 성공, 20년 만에 총선을 통한 3당 체제를 형성해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올해 2월 호남 정통 야당 세력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며 광주·전남·북에는 성난 물결이 밀려들었다. 나라에 떨어진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념 다툼에만 골몰하고 계파 주도권 싸움으로 날을 지새우는 무능력한 야당의 악습을 청산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요구가 분출하면서 국민의당으로 지지가 쏠렸다. 국민의당은 합리적인 대안 제시, 양당 체제의 극단적인 갈등 조정자를 자임하며 호남의 대안 정당으로 자리 잡았다.

‘실용 정당’으로 거듭 나길

이제 지난 15대 총선 이후 또다시 단독으로 강력한 제3당이 된 국민의당의 임무는 막중하다. 우선 국민의당은 노무현 정부 이후 극심한 소외에 시달렸던 호남의 새로운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호남인이 국민의당에 바라는 것은 간단명료하다. 민주주의와 민족협력을 추구하고 항상 대의와 명분을 중시했던 ‘호남 정치’를 복원해 달라라는 것이 첫 번째 바람이다. 수도권과 영남·충청권에 편향된 정부 예산과 인사의 균형 배분을 통해 호남 활성화를 촉진해 국토를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 또한 국민의당 몫이다.

새누리당-더민주 양당 정치의 가장 큰 폐해였던 극단적인 대립을 조정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제3당으로서 국민의당 역할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당은 이제부터 진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끊임없는 개혁으로 한국 정치 수준을 끌어올리고,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실용 정당’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을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첨병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근대 초 유럽에는 ‘그랜드 투어’ 관행이 있었다. 영국 상류층 청소년들이 정규 교육 대신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을 장기간 여행하던 것을 말한다. 2~3년 정도 걸리기도 했으며, 파리와 로마는 필수 탐방지였다. 당시 영국에선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 입학시키느니 여행을 보내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무명의 학자였던 애덤 스미스 역시 동행 교사로 귀족들의 여행길에 따라 나선 적이 있다. 그리고 여행의 지루함을 견디기 위해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유명 한 ‘국부론’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세상은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 속의 한 페이지만 읽을 뿐이다.”

여행은 모든 이들의 로망이다. 여행을 통해 부쩍 성장한 자신을 느끼고 대견해 하기도 한다. 하지만 금전·시간·체력·인간관계 등등 발목을 잡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이들을 통한 간접 경험은 작은 위안을 준다. 외국에서 날아온 엽서를 받을 때면 누군가의 여정

에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대개는 외국 풍광이 담긴 엽서지만 아주 가끔 직접 그린 그림엽서가 도착할 때면 부자가 된 듯하다.

1년 여정을 이어 온 ‘광주로 띄우는 그림 편지’가 13일(18면) 시즌1을 마무리한다. 지금까지 화가 12명이 세계 곳곳에서 띄운 마흔 통의 그림 편지가 도착했다. 망월동, 섬진강, 제주도, 베트남, 라오스, 인도, 파리, 베니스... 화가들이 발품을 팔아 준 덕분에 지면으로 편만한 여행

을 떠날 수 있었다. 그림은 물론이고 글까지 함께 써야 해서 힘들었을 터다.

그림 편지

실크로드를 여행한 김해성 작가가 보낸 첫 번째 편지에 편집자가 뽑은 제목은 ‘인생 여행이란 게 좋지만 하찮아... 세상을 안방 삼아 즐기세’였다. 맞다. 마흔 통의 편지를 통해 우리 세계의 아름다운 풍광, 가슴 시린 모습을 만났다. 또 그곳에서 작가들이 느낀 생각과 감정을 통해 ‘삶’이라는 긴 여행길도 함께 걸었다.

광주일보 창사 기념일인 오는 20일부터 새로운 작가가 들어 진행하는 ‘광주로 띄우는 그림 편지’ 시즌2가 시작된다. 독자들과 함께 행복한 여행길에 다시 나선다. /김미은기자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만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1(열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